



연차 대회 동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몇 가지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새로 부름 받은 지도자 및 정책 발표

이제까지 가장 많은 회원들에게 증계된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정책 변경을 발표했으며 교회 회원들은 새로운 청년 회장단, 새로운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칠십인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 및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새로운 역원들을 지지했다.

제172차 반연차 대회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동유럽, 남태평양의 여러 지역에 방송된 최초의 연차 대회였다. 5,000여 개의 집회소에 교회 모임을 방송할 수 있도록 장비가 설치되어, 교회 회원 수의 90퍼센트가 연차 대회를 위성 증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차 대회 각 모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었다.

2002년 10월 대회에서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단이 지지되었다. 수잔 터블류 태너 자매가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줄리 비 백 자매가 제1보좌로, 그리고 엘레인 에스 델튼 자매가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미기렛 디 네이플드 자매와 보좌였던 캐롤 비 토마스 자매, 새론 지 라슨 자매가 본부 청년 회장단에서 해임되었다.

5 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을 받

았다.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 제임스 엠 던 장로, 대릴 에이치 간 장로, 디 렉스 게렛 장로, 스펜서 브리 존스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리차드 디 올레드 장로, 에토스 엠 에모림 장로,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얼 엠 문슨 장로,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또한 21명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 해임되었다. 그 중 11명이 미국에서 봉사했으며, 다른 칠십인들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영국, 독일, 일본, 한국, 페루, 우루과이에서 봉사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으로 지지되었으며, 발 알 크리스틴슨 장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제2보좌로 지지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벤 비 뱅크스 장로가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되어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으며,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가 다른 임무를 맡기 위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제2보좌에서 해임되었다.

신권 모임 동안에 힝클리 대관장은 몇 가지 정책 변경을 발표하고 현행 정책과 관행을 재강조했다. 신권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인정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성전 추천서의 유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며 이것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도자들이 접견에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관장은 또한 선교사 환송 모임은 떠나는 선교사의 성찬식 말씀으로 제한되고, 가족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거나 계획하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선교사들을 위한 오픈 하우스(가정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갖는 모임)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회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월요일 저녁 시간에 학교 활동이나 다른 행사를 갖지 않음으로써 가정의 밤을 갖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의 바람을 존중해 줄 것을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부채, 부도덕, 어린이 학대에 반대하는 말씀을 했다. ■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 리 가족은 엘마서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Spiritual Exercise Every Day(매일 영적인 운동을 함)를 축약한 SEED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은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장로는 말한다.

운동은 크리스티슨 장로의 생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휴가 때면 온 가족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크리스티슨 장로와 아내 드보라, 그리고 네 명의 자녀들은 가족 예배와 경전 읽기 등을 통해 영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크리스티슨 장로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영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경전을 상고하고 명상하는 일은 제 자신을 강화하고 간증을 키워 주었습니다.”라고 크리스티슨 장로는 말한다.

크리스티슨 장로는 1956년 3월 18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론 글렌과 콜린 클로워드 크리스티

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그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콩코드로 이사했다. 그는 대학생이 되어 다시 유타로 돌아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미식 축구를 했다.

“미식 축구는 제가 칠레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전까지 관심을 집중시킨 일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했습니다.”라고 크리스티슨 장로는 말한다.

그는 1978년 3월 28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그 스스로 “내 복음생활의 표본”이라고 부르는 드보라 존스와 결혼을 한 후에 회계와 경영을 공부했다. 자동차 달러의 소유주로서 그는 “성실함의 원리대로 생활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감독과 스테이크장을 지낸 부친과, 형, 그리고 선교부장을 비롯하여 인생에서 여러 조연자들로부터 이러한 원리를 배웠다.

이 조연자들은 또한 그가 감독, 선교부장 및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크리스티슨 장로는 이러한 모범과 경험을 통해 “영이 실제로 우리와,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름에서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

제임즈 엠 던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다 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 매일 간증을 키워 왔습니다. 어렸을 때 느낀 영적인 경험들은 봉사를 통해 성숙해 갔으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라고 최근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부름 받은 제임즈 엠 던 장로는 말한다.

1940년 4월 16일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에서 빌리 디와 멜바 메이어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5남매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하면서 “말일성도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모두 받았다.”

우루과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후에 던 장로는 1963년 8월 7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산드라 (페니) 바커와 결혼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그녀를 칭찬하고 존경해 왔다. 결혼 초기에 던 장로는 유타 내셔널 가드에서 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것을 공부하여 학위를 받고 유타 대학교에서는 법학을 공부하여 학위를 받았다.

법정 변호사로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던 장로는 고객이 적고 일할 시간이 적더라도 그것은 고등 평의원, 감독, 스테이크장, 선교부장 및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교회 봉사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섯 명의 딸을 둔 던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과 아내는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이러한 관계는 그가 콜롬비아에서 가족과 함께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때 강화되었다. 그와 아내 그리고 딸들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강화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부름을 받은 직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름에 비추어 볼 때 봉사의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는 가족과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훌륭한 일들에서 그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

대릴 에이치 간 장로

칠십인 정원회



대릴 에이치 간 장로가 웨스턴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선교부장이 그가 봉사하는 지역을 방문했다. 간 장로는 선교부 지역이 방대한 관계로 선교부장을 별로 볼 수 없었으므로 이번 방문은 특별한 일이었다.

간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아라브 선교부장님은 간증을 마치면서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간증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은 제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의 일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난 10월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된 간 장로는 그의 선교부장이 전한 간증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거듭해서 경험했다. 몇 년 후에 오하이오 주에서 있었던 한 스테이크 대회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영이 그에게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다는 것

을 기억한다. 그는 치과 대학에 등록한 지 겨우 2주밖에 안되었는데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이 그의 부름을 공식적으로 알려 주었다.

"김볼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 형제님, 주님은 형제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면 주님께 서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간 장로는 기억한다. 감독, 스테이크장, 청남 회장, 고등 평의회 및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을 포함하여 그에게 주어진 부름에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가운데 그는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른 일들을 훌륭히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내 아이렌은 그가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집안 일을 돕든 와드를 인도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부름이든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간 장로는 1938년 12월 28일 유타 주 트레몬톤에서 우엘과 로리타 호지스 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1년 12월 19일에 유타 로간 성전에서 아이렌 홀과 결혼했다. 슬하에는 6명의 자녀와 19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다. 그들은 애리조나 주 메사에서 자녀들을 키웠다. ■

다렉스 게렛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다렉스 게렛 장로는 2002년 1월 5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되었다. "저는 자신이 일을 해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며, 어떻게 준비시키고 도움을 주는지 압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부름을 받아들일 때마다 저는 주님께 그분이 쓰시는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라고 아이다호 출신의 말씨가 부드러운 농부인 게렛 장로는 말한다.

게렛 장로는 1936년 4월 9일 아이다호 주 헤이번에서 도널드 웨인과 앤 베일리 게렛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근에 있는 벌리에서 아버지와 형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성장했다. 그는 1955년에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어렸을 적 친구였던 마조리 크레인과 결혼했다. 슬하에는 9명의 자녀와 35명의 손자 손

녀가 있다.

"저와 자녀들은 아침이면 집 뒤 현관에 개와 함께 앉아 가족 일을 하기 위해 장화를 신던 일을 기억합니다. 물론 집사람과 저는 자녀에 대해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알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었습니다." 라고 게렛 장로는 기억한다.

자신의 직업과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는 아이다호 주 낙농 명예의 전당과 남동부 아이다호 가족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얻었다. 또한 올해의 환경 및 자원 관리 농부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교회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선교부장, 지역 대표, 스테이크장, 스테이크 서기, 감독, 와드 서기 및 가정 복음 교사 등의 부름을 수행했다. 이러한 부름들은 그에게 감사와 겸손을 가르쳐 주었다.

"허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과 그분의 살아 계신 예언자에 의해 우리가 인도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서 어떤 부름을 받든 그 부름에 대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라고 게렛 장로는 말한다. ■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 리 모두 올라가서 감독님이 깜짝 놀라 기절하게 하는 거야. 모두 올라가서 간증하자.” 이것은 어린 스펜서 브이 존스가 친구 집사들에게 준 과제였다. 그것은 간증이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저는 간증을 드리면서 간증이 끝날 무렵, 어쩌면 그 전달에는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우는 것을 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킁킁거렸지만 제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영이 영에게 말을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기억한다.

최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 받은 존스 장로는 1945년 9월 17일에 애리조나주 새포드에서 버질과 닐 베이커 존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뉴멕시코의 버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성장했다. 그곳에서 집회소는 활

동의 중심지였다. “우리는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친척이 아니더라도 고모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친척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북선교부에서 봉사한 후에 존스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녔으며 가족학 학위를 받았다. 캠퍼스에서 있었던 애리조나 클럽 무도회에서 그는 조이스 엘리사벳 매튜스를 만났으며 그들은 1968년 6월 3일에 결혼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들은 뉴멕시코주 켈럽으로 이사했다. 존스 장로는 가구 회사와 가족 회사 등을 위시하여 여러 분야의 사업에 종사했다.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 세 명의 자녀와 8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존스 장로는 자신이 받는 모든 부름이 축복이 되었으며 주님의 왕국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그를 준비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는 청남 회장이든, 감독단 보좌든, 감독, 세미나리 교사, 선교부장, 지역 집행 서기, 혹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든 모든 부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각 부름은 더 담돌이 되며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성장합니다.”라고 존스 장로는 말한다. ■

수잔 윈더 태너

본부 청년 회장



와 드와 스테이크 단위에서 초등회, 청년회 및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수잔 더블류 태너는 조직 간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 여자 아이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를 배웁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단계에 이르며 우리는 사랑이 우리를 감싼다는 것을 느낍니다. 각 단계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얻는 증가된 이해와 능력과 더불어 완전한 단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름 받은 본부 청년 회장으로서는 태너 자매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들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한다.

1953년 1월 10일 유타주

그랜저에서 리처드 더블류와 바바라 우드헤드 윈더 사이에서 태어난 태너 자매는 커다란 낙농장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존 에스 태너를 만났다. 그들은 1974년 9월 3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태너 자매는 주부로서 피아노 교사의 일을 했다. 태너 부부는 유타주 프로보에 살고 있으며 슬하에는 다섯 자녀와 세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가족이 브라질에 사는 동안 남편은 그곳에서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태너 자매는 청년 프로그램에 대해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두 명의 큰 딸은 청년 주제를 포 르투갈어로 배웠다. “저도 딸들과 함께 그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주제를 외우기 시작할 때 그 메시지는 정말로 마음속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다.

“메시지는 청년 주제에 적절한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청년들이 그 주제가 간증과 행동과 생활에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태너 자매는 말한다. ■

줄리 뱅거터 백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우 우리는 자녀들이 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움을 주는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농장이 있어서 우유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데 음약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본부 청년 회장단 보좌로 새로 부름 받은 줄리 백 자매는 말한다.

세 명의 자녀가 피아노를 연습함으로써 일하는 방법을 배운 것처럼, 백 자매는 11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면서 일과 봉사의 기쁨을 배웠다. 1954년 9월 29일 윌리엄 그랜트와 제랄딘 햄블린 뱅거터 사이에서 태어난 백 자매는 유타 주 그랜지와 부친이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장했다.

백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가족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1973년 12월 28일 그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레이몬 피 백과 결혼했다. 그들은 현재 유타 주

알파인에 살고 있으며 슬하에는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 그리고 세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백 자매가 좋아하는 활동은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백 자매는 상호부조회와 청년회에서 여러 가지 부름을 수행했지만 교회의 청년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영적인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꿀벌반에서 준 반들로(멜트 천으로 된 넓은 리본으로 어깨와 가슴에 두르는 것이다)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청년 시상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자신이 청년이었을 때 하던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한다.

그녀는 그러한 열정을 현재 청년들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인 개인발전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킨다. 그녀는 본부 청년 임원으로 봉사했으며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저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청년이 침례 성약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례 성약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면 그녀는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엘레인 슈왈츠 델튼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엘레인 에스 델튼 자매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2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부친이 급작스레 별세했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에서 큰 시련의 시기였으며 부친이 가족에게 그토록 필요한 시기에 별세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 자주 기도를 드렸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듬해 여름, 그녀가 BYU 폭 댄스 팀과 더불어 유럽 여행을 할 때에 왔다. 아버지의 날에 무용팀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동안 한 연사가 잠언 3장 5~6절을 인용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성구는 그 이후로 제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할 경우, 그분이 저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의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델튼 자매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똑같은 신뢰를 갖도록 격려하고 성신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델튼 자매는 1946년 11월 1일에 유타 주 옥든에서 델빈 레오와 엠마 마틴 슈왈츠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68년 9월 13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스티븐이 델튼과 결혼했다. 슬하에는 여섯 명의 자녀가 있으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살고 있다.

델튼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영어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본부 청년 임원, 스테이크 청년 회장, 월계반 고문 및 상호부조회 교사로 봉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켜야 하는 평범하지 않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그들은 의로운 모범을 찾으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존 에이 쿠푸오르 가나 대통령이 최근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는 동안 컨퍼런스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을 교회 영접 책임자인 노만 디 섬웨이 형제가 안내하고 있다.

가나의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다

대 관상단과 만난 자리에서 가나 공화국의 존 에이 쿠푸오르 대통령은 자국에 제공해 준 교회의 인도주의적 봉사와 종교적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쿠푸오르 대통령은 9월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는 동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2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가나의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쿠푸오르 대통령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 지도

자들과 경제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여러 명의 관리들과 함께 유타를 방문했다. 머무르는 동안 그는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하고 웰페어 스퀘어, 템플 스퀘어, 컨퍼런스 센터를 포함하여 교회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쿠푸오르 대통령은 자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취업과 관련된 봉사에 대해 교회에 감사를 표했다. 교회는 가나에서 지난 15년 동안 140 차례 이상의 인도주의적 봉사 활동을 후원해 왔다.

답례로 힝클리 대관장은 2003년 가을에 완공될 예정인

가나 아크라 성전의 공개 전시회에 쿠푸오르 대통령을 초대했다. 대관장은 또한 교회를 위해 협조해준 데 대해 쿠푸오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감사와 호의를 표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매우 유익한 방문이었습니다.”라고 전임 서아프리카 지역의 회장이었던 칠십인 정원회의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장로는 말했다.

교회는 가나에 다섯 개의 스테이크와 약 20,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성전, 방문자 숙소, 스테이크 센터, 그리고 지역 사무실 건물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

교회의 친절한 영접과 안내가 이해의 다리를 놓다

나오미 프랜스

솔 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영접 책임자인 노만 디 섬웨이와 루애너 섬웨이가 미국 증서부 지방에서 온 저명한 기독교 목사를 만났을 때, 그 목사는 자신의 정확한 방문 목적을 모르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섬웨이 형제 부부는 그가 방문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를 말일성도 인도주의 센터와 웰페어 스퀘어를 보여 주기로 결정했다.

섬웨이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그와 함께 보낸 두 시간 동안, 그가 거들해서 사용했던 단어는 ‘놀랍습니다.’, ‘말기가 어렵군요.’, ‘장관이군요.’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가 배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 승려에서 정부에서 나온 군 요원에 이르기까지, 사업, 정치 및 종교계에 있는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매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영접 책임자의 환대 속에서 템플 스퀘어, 가족 역사 도서관, 인도주의 센터, 웰페어 스퀘어,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컨퍼런스 센터 등지에서 교회 역사 및 교리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



교회 영접 사무국 사진 제공

지메 선교사들이 방문자들을 템플 스퀘어에서 안내하고 있다.

“우리가 이 방문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셸웨이 형제는 말한다. 대관장단은 전임 교회 영접 책임자였던 로웰 스노우와 타마라 스노우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여러 면모들이 교회를 알려 주도록 하십시오.”라는 비슷한 지침을 주었다.

교회의 여러 면모들이 교회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웰페어 스퀘어에서 방문자들이 복지 시설들을 돌아보는 동안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들이 실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웰페어 스퀘어에 위치한 감독의 창고 관리자인 맬 가드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성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립을

이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습니다.

가드너 형제는 방문자들을 인도하여 계산대가 없는 식료품 상점으로 간다. 이 상점에서는 궁핍한 사람들과 감독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받는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식품들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방문자들은 지역의 스테이크에서 온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창고와 재과점, 통조림 공장, 데저렛 인터스트리 재활용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종종 감명을 받는다. 액자에 있는 예언자 요

셉 스미스의 한 인용구가 자원 봉사의 그러한 정신을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을 축복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온 인류를 축복하기를 갈망하며 그 범위를 온 세상으로 넓힙니다.”(*History of the Church*, 4:227)



가족 역사 상담자인 볼프강 레베디 형제(왼쪽)가 독일에서 온 방문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을 둘러보는 일을 돕고 있다.

교회 영접 사무국 사진 제공

축복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관람이 끝나갈 무렵 방문자들에게 데저렛 우유 가공소에서 생산한 초코렛 우유와 체다르 치즈를 먹어 볼 것을 권유하면서 가드너 형제는 말한다.

인근에 있는 말일성도 인도주의 센터는 교회의 복지 활동이 국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곳에서 전임으로 봉사하고 있는 연로한 선교사인 제리 브라운 장로가 방문자들을 인도하여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의류, 신발, 의약품, 교육 자재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창고를 보여 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라고 말한다. 때때로 방문자들은 인도주의 센터와 웰페어 스퀘어에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취업 및 언어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주의 센터의 관리자인 윌리엄 디 레이놀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필수 의류, 의료 장비 및 기타 자재들이 매주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에 보내기 위해 선적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직업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더욱더 착실히 자립하게 되면서 그들의 눈에서 기쁨을 보게 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템플 스퀘어에서는 자매 선교사들이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통상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자매 선교사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투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종종 안내자에 따라서는 주님의 영을 느끼기도 한다. 섬웨이 자매는 미국 인디언들이 물론 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방문자가 적대적인 태도로 물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 투어 안내를 하던 자매 선교사는 “저는 블랙후트 앤드 쇼슨 부족 출신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물론경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전했다.

2002년 동계 올림픽에 맞추어 모나코의 봅슬레이 팀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부락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가족 역사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도서관에서는 방문자들이 “가족은 영원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 도서관의 공보 책임자인 엘리언 헤슬레튼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영원히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그 점이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수백 명의 이용자들이 4개 층을 가득히 채운 계보 기록을 찾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해 관심을 종종 보이기 시작하기도 한다. 동유럽 조상을 갖고 있고 가족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한 방문자는 기억에 남는 한 방문을 통해 그 조상들의 승선 기록과 이민 기록을 보기도 했다. 섬웨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두 시간 반 뒤에 우리는 그에게 자리를 옮길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가시지요,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문자들을 위한 투어가 끝날 시간이 오게 되지만 그들은 오래 지속되는 깊은 인상을 갖게 된다. 스노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대체로 방문자들은 솔트레이크를 떠나며 ‘전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파스함과 우정, 사랑과 관심을 찾아 떠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섬웨이 형제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바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의식 색인

FamilySearch[™] 의식 색인의 신 버전이 www.familysearch.org를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죽은

사람 개개인을 위해 집행된 모든 의식의 기록이 담겨 있다. 회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성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제출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성전 의식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확인이 의식의 중복 집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백 만 명의 이름이 최근에 의식 색인에 추가되었으며, 회원들이 그들 조상에 관해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색인은 매주 갱신된다.

의식 색인의 온라인 버전에 있

는 의식 정보에 등록하고 접속하기 위해서,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회원 기록 번호와 확인 일자가 필요하다. 와드 및 지부 서기가 회원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

가정에서 또는 지역의 가족 역사 센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회원들은 의식 색인 온라인 버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가족 역사 센터는 지역 신권 지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인터넷 개설에 관해 가족 및 교회 역사부에 문의할 수 있다. ■

말일성도 교회: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매 10년마다 개정되는 한 조사에 따르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종교로 지명되었다.

이 조사는 또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보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가장 느린 성장을 보이는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진보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3 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인 말일성도 교회는 미국에서 보수 종교로의 추세를 이끌었다. 다음으로 빠른 성장을 보인 종교는 Churches of Christ, the Assemblies of God, 그리고 로마 카톨릭 순이다.

글렌머리 리서치 센터(카톨릭

조사 및 사회 봉사 조직)는 149개의 종교 그룹에서 접수된 답변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의 인구 통계에는 종교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는 미국 내에서 종교에 관한 한 가장 포괄적인 평가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말일성도 교회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종교 단체이며, 유태가 미국에서 “가장 종교적인 주”로서 종교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75 퍼센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태 주의 프로보는 그 인구 중에서 149개의 종교 그룹에 속하는 특정 종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90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